

---

---

## 영재교육에 대하여

---

---

Pcter Frankl (일본)

제가 태어난 나라인 “헝가리”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1천만명 정도로 한국의 1/4에도 못 미칩니다.

사방(주변)이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사면초가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헝가리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이 1456년으로 지금으로부터 540년전의 일입니다.

바다도 높은 산도 없는 우리나라(헝가리)는 저지만 자랑거리로는 헝가리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적에는 곤란 “왜 헝가리 출신의 우수한 학자가 많을까?”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설은 “헝가리어는 어려우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어나 일본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는데 이 언어는 문법이 복잡해서 유럽에서는 “아주 어렵다”라는 평이 나 있습니다.

저도 쭉 “헝가리어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8년전부터 동양에서 살게끔 되었는데 일본어나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헝가리 출신의 우수한 학자가 많은 것일까요?

언어의 복잡성은 어린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재교육입니다.

헝가리는 고교생에 대한 수학 콘테스트의 역사가 백년이상이나 됩니다. 이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중에서 유명한 수학자나 물리학자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헝가리 수학회가 개최하는 전통적인 “크루작코 콘테스트”를 비롯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1947년부터 교육부 주최로 현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갖가지 여러 종류의 언어 콘테스트가 매년 행해지게끔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학

입시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통 학생(일반적인 우등생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성적에서 10명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시험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콘테스트는 대학에 입학하기 오래 전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중학 3학년 때 그 콘테스트에 우승해서 처음으로 IMO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였습니다.

IMO에 참가하기전 합숙 훈련에 가다하였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란 저는 헝가리에서 수학에 관련한 가장 우수한 고등학생들과 3주동안이나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학자가 된 제일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으므로 저도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우들로 부터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들었고, 선생님께서 부터도 “이제 너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 곳 고향에는 저를 학문으로 이끌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합숙에 초대되어 여기에서 수학에 대한 재능이 저와 같은 수준이거나 또는 더 뛰어난 1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만나 수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제 눈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일본에서 영재교육에 몰두하고 있으며, IMO나 산수올림픽의 기획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지도를 정기적으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